

## 대책 없는 무안공항

### 연결 고속도로 지연·정부 초기 지원도 불투명

오는 11월 개항되는 무안국제공항의 초기활성화 대책이 전혀 없다. 개항이 불과 6개월 앞으로 다가왔으나 광주공항과의 기능 분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데다, 개항 초기 항공 수요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 부재로 인해 '서남권 물류거점공항'을 지향하는 무안공항 건설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 초기활성화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완공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지는 등 열악한 주변 SOC 여건도 초기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와 전남도가 최근 발표한 '무안공항 수요예측'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0년 기준 국내선 184만1천 명, 국제선 19만8천 명 등 연간 203만9천명이 무안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화물의 경우 국내선 3만1천299t, 국제선 1천999t 등 모두 3만3천298

t의 물량이 무안공항을 통해 운송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이 같은 수치는 광주공항이 운영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항공 수요 부족으로 개항 초기 연간 수십억원의 공황 운영적자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수요예측을 잘못해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오픈스카이(Open Sky)' 정책에 대해 아직까지 정부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전남도는 최근 '취항을 원하는 국내·외 모든 항공사에 면호를 개방하고, 심야에도 국제선 항공기가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는 오픈스카이 정책을 무안공항에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정부는 난색을 표시했다. 또 국내 정규 노선 확보 방안이나 항공사 유치에 대한 청사이용료 및 착륙료 인하 등 각종 인센티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논란만 야기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무안공항~순천 중·동부권 연결도로 건설, 서남해안 일주도로 건설 등 무안공항 주변 SOC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거나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건설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대책 없이 무안공항을 국토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광주공항과 기능 중복 문제 해결, 오픈스카이 정책 적용, 승객·화물 확보대책 마련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행기자 redpla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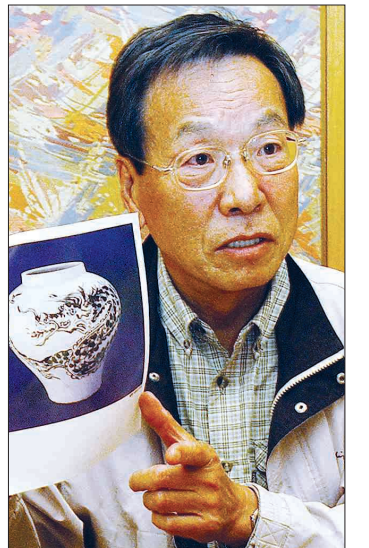
### 광주일고 대통령배 야구 우승

광주제일고 선수들이 3일 동대문야구장에서 열린 제41회 대통령배 고교야구 서울고와의 결승전에서 9회말 6번 타자 윤여운의 극적인 끝내기 안타가 터져 10-9로 승리하자 일제히 덕아웃에서 뛰쳐나오고 있다. > 관련기사 22면

/서울=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사라진 도자기 7점의 진실은?

### 87년 전두환 대통령 방문때 지방청와대 전시 도예가 이경호씨 "한 푼도 못받았다"반환 탄원



"20년 전 '지방 청와대'에 전시하기 위해 가져간 도자기를 돌려 주십시오." 화순에 거주하는 중진 도예가 이경호(68)씨는 지난 1987년 '지방청와대'로 불렸던 광주시 서구 농성동 옛 전남지사 공관에 보낸 도자기 때문에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서슬퍼런 5공화국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광주 방문에 맞춰 전남도의 요청으로 도자기 7점을 보냈지만 도자기 값은 커녕 아직까지 돌려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씨에 따르면 당시 전남지사 비서실장이던 P씨가 전두환 대통령의 광주 방문에 대비해 도지사 공관에 전시할 도예작품 몇 점을 부탁했다는 것. '지방청와대'로 불리던 옛 지사 공관은 1982년 대통령의 지방 출장을 위해 만들어진 호화시절이다.

이씨는 "전남도의 요청을 받고 호랑이, 용, 독수리 등의 형상을 새

겨 넣은 백자 7점을 광주시 동구 운림동 작업실에서 한달 동안 만들었다"며 "직접 지사 공관으로 가서 거실, 이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등에 등에 전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당시 작품은 35~70cm 크기로 한 점당 500만원에 호가하는 대작들이었지만 대여료 한푼도 받지 못했다"며 "당시 작품을 기증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이 같은 사연과 함께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지난 2월 도청에 보냈다.

그러나 도자기를 주문한 사람으로 지목된 P씨는 "이씨의 작품을 지사 선물용으로 구입한 적은 있지만 특별 전시용 제작을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본보 취재 결과 이씨의 도자기는 전남도청의 재산 목록에 잡혀 있지 않았다. 20년의 세월이 흐른 데다, 5공 이후 지사 공관이 폐쇄되고 전남도청이 이전하는 과정에서 실종된 것이다.

이경호씨가 20년전 전남지사 공관에 보낸 도자기와 비슷한 모양의 백자 시진을 보여주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위직기자 jrw@kwangju.co.kr

전남도 관계자는 "도청 재산목록을 일일이 뒤졌으나 이씨의 도자기는 찾지 못해 이씨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 못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전시회 위주의 도예 작품 활동을 해온 중견 작가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대우건설 직원 3명 나이지리아서 또 피랍

### 나이지리아 건설 현장에서 대우건설 임직원 3명이 현지 무장괴한들에 의해 납치됐다. <관련기사 6면>

대우건설과 외교부에 따르면 3일 오전 9~10시(한국시각·현지시각 새벽 1~2시) 나이지리아 남부 니제르 델타지역 포트 하코트시(市)에서 차량으로 1시간 떨어진 아람 발전소 건설현장에 무장한 괴한들이 총을 쏘며 대우건설 임직원 3명과 필리핀 대우건설 임직원 3명과 필리핀 대우건설 임직원 3명까지 압수수색을 하자 경찰이 강 대표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정부는 주 나이지리아 대사를 반장으로 하는 현지 대책반을 꾸려 납치단체의 신원을 파악 중이다. /연협뉴스

## 강재섭 대구사무실 압수수색

### 檢 '과태료 대납' 수사...강 대표에 불동 가능성

'과태료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진섭)는 지난 2일 오후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대구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이 국회 제1당의 대표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강수를 등에 따라 수사 확대는 물론, 정치권에 큰 파장을 던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검찰은 이날 강 대표 대구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컴퓨터 본체와 선거관련 자료, 회계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이날 자신이 과태료를 대신 냈다고 주장한 윤진 대구 서구 청장 사무실과 서구 비산동 윤 구청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해 컴퓨터

터 본체 3대와 리본상자 2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에 들어갔으며 윤 구청장뿐 아니라 과태료 대납과 관련, 강 대표 개인실, 돈의 출처에 대한 의혹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한 뒤 내주 중 윤 구청장을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대구지검 공안부가 '과태료 대납'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대구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하자 경찰이 강 대표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유망학원형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암동보실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암동보실 1588-5051 ▶ T.061-360-5000

강종우 박소현의 섹.시.토.크 ▶ 21면  
매주 금요일 찾아갑니다

25세 이상 건성피부의 다양한 피부노화를 걱정한다 **76%**

피부 시간을 뛰어넘는 생명감

좋은 화장품을 가장 필요로 하는 당신을 위해  
**아이오페 슈퍼비탈 크림**

시간이 흐르고 자-간 피부세포는 수분 보유력과 함께 생명력이 둔화되어, 다양한 노화로 나타내게 됩니다. 뛰어난 항산화 작용과 피부 신진대사를 돕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오메가3를 아이오페의 독점특허 NLC (Nano Lipid Carrier)로 담아낸 슈퍼비탈 크림. 피부에 부드럽게 덮으며 지켜주는 생명감이 피부결 하나하나, 깨끗한 아름다움으로 정돈해 드립니다.

IOPE SUPER VITAL extra moist cream  
Contains Nano Lipid Carrier  
PLANT EXTRACTS 43.7%  
USPANTH LIGHT TESTED